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 전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과 함께 인도적 우려 확대

제네바/서울 (2020년 6월 9일) –유엔 독립전문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만연한 식량 부족과 영양실조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조치로 더욱 악화됐다는 점에 우려하며, 해당국 정부와 국제공동체가 식량 공급 확보를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는 오늘 [성명](#)을 내어, 보건, 수감 환경, 가족 분리 피해자 상봉, 제재 조치 영향 및 국제적 참여 이상 다섯 가지 우려되는 사안을 해결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언급했다.

특별보고관은 “1990년대 식량 부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향후 식량 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더불어 이미 식량 불안정이 만연한 상황이 우려를 낳는다”고 언급하며 “해당국 정부는 식량 문제와 관련하여 재정 자원을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현장에서 제한없이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즉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국간 국경이 2020년 1월 21일부터 폐쇄됐고, 해당 국경 폐쇄는 식량 위기를 악화시키며 양국간 교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무역업자의 소득 수준을 점차적으로 떨어뜨렸다. 대도시에서 노숙아동(꽃제비)을 포함하여 노숙자 수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약값이 급격하게 치솟는 사례가 있다고도 파악됐다.

하루에 두 끼만 먹거나 옥수수만 먹는 가족 수가 늘었다는 보고가 있고, 일부 굶주리는 사례도 있다고 알려진다. 군인도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특별보고관은 말했다.

금번 위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명하며, 기본적인 경제권과 사회권을 완전하게 향유하는 데 제재조치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드러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 위원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제재 면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계 수단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대응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 조치를 재고하길 독려”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인도적 활동 관계자 이동 제한 해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또한 촉구한다”고 특별보고관은 말했다.

특별보고관은 영양실조가 흔하게 발생하는 감옥 내 수감자 상태에도 우려를 표했다. 비밀리에 운영되는 정치범 수용소 내 환경은 더 좋지 않을 수 있는데, 고된 노동, 식량 부족, 전염병 및 과밀화로 인한 수감자 사망이 잦다고 진술한 사례가 있다.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이들 수감자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고, 독립적인 감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취약한 건강 상태인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어서 “다른 국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방지하고자 수감자를 석방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그 선례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토마스 오희나 키타나(아르헨티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임명을 받았다. 인권 분야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은 변호사로 미주인권위원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 아동 납치 문제를 다룬 비정부기구 마요 광장의 어머니들(Abuelas de Plaza de Mayo) 대표로도 활동했다. 과거 볼리비아 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 프로그램을 총괄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미얀마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직을 역임했다. 인권이사회 결의 40/20에 의거하여 해당 위임권한 수행 기간이 최근 연장됐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제도로,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 제도 하에서 가장 많은 독립전문가가 참여한다. 특별절차는 특정국가 인권 또는 전세계에 적용하는 특정 인권 주제를 다루기 위해 인권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특별절차 전문가는 유엔 직원 신분이 아니고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타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유엔 인권 국가별 웹페이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추가 정보 및 언론사 문의는 Madoka Saji (+82 10-4230 3523 / msaji@ohchr.org)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타 유엔 독립전문가 관련 언론사 문의는 Renato de Souza (+41 22 928 9855 / rrosariodesouza@ohchr.org) 및 John Newland (mediaconsultant2@ohchr.org)로 문의해 주십시오.

트위터 계정([@UN_SPExperts](#))을 통해 유엔의 독립 인권 전문가 관련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다른 이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 주세요.

#Standup4humanrights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standup4humanrights.org>